

2016년 인권지표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순 서

I. 평가개요	1
II. 추진경과	1
III. 평가방법	2
IV. 2016. 인권지표 총평	4
V. 분야별 인권지표 결과 분석	8
VI. 향후 추진계획	17

< 붙임자료 >

[붙임 1] 인권지표 구성

[붙임 2] 인권지표 측정방법 및 담당자 현황

[붙임 3] 인권지표별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붙임 4] 인권지표별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붙임 5]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 사업 결과

2016년 인권지표 평가결과

광주공동체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주 인권현장의 실천도구인 인권지표의 2016 평가결과 보고

I 평가개요

- 평가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평가기간 : 2017. 1월 ~ 3월
- 평가대상 : 2016년도 5대 분야 18대 영역 인권지표
- 평가방법 : 정량평가(인권지표 50개 - 하위지표 72개)

· 분 야 별	지표	하위지표
· 합 계	50	72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6	9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11	14
제3장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16	23
제4장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9	12
제5장 문화창조 연대도시	8	14

II 추진경과

- 100대 광주지표 발표 : '12.5.21.
-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작성 : '12.9.~'13.1.
- 인권지표 실천결과 평가 및 설문조사 취합 : '14.1.~3.
- 2013년 100대 광주지표 평가보고 : '14.4.25.
- 2014년 인권지표 보완 및 실천 : '14.4.
- 2014년 실적 취합 및 정성지표 설문조사 : '14.11.~'15. 2.

- 100대 인권지표 개선보완(전문가TF, 인권증진시민위원회) : '14. 9.~'15. 3.
- 100대 지표내 하위지표 추가·삭제, 측정산식 개선 등
- 2015년 100대 (개선)인권지표 추진 : '15. 4.~
- 2015년 정량평가(설문조사) 실시 : '15.12.~'16.2.
- 2015년 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취합·분석 : '15.12.~'16.3.
- 2015년 평가 보고(인권증진시민위원회) : '16. 4.
- 2016년 100대 (개선)인권지표 추진 : '16. 4.~
- 인권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회(인권지표 문제점 검토) : '16.10.
- 인권지표 개선방안 검토(인권정책연석회의) : '17. 2.
- 2016년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취합·분석 : '17. 1.~'17. 4.
- 2016년 평가 보고(인권증진시민위원회) : '17. 4. 24.

III

평가방법

- 100대 인권지표(하위 : 145개)를 50대 인권지표(하위 : 72개)로 변경하여 평가
 - * 인권전문가회의인 ‘인권정책연석회의’에서 100대 지표 전반에 대한 측정산식, 지표의 대표성 등을 세부 검토 후 50대 인권지표 추출
- '15년 대비 '16년 증·감 변화량 또는 개선율로 인권지표 평가
-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통한 인권지표 값의 의미 및 2016년 추진실적 검증 및 평가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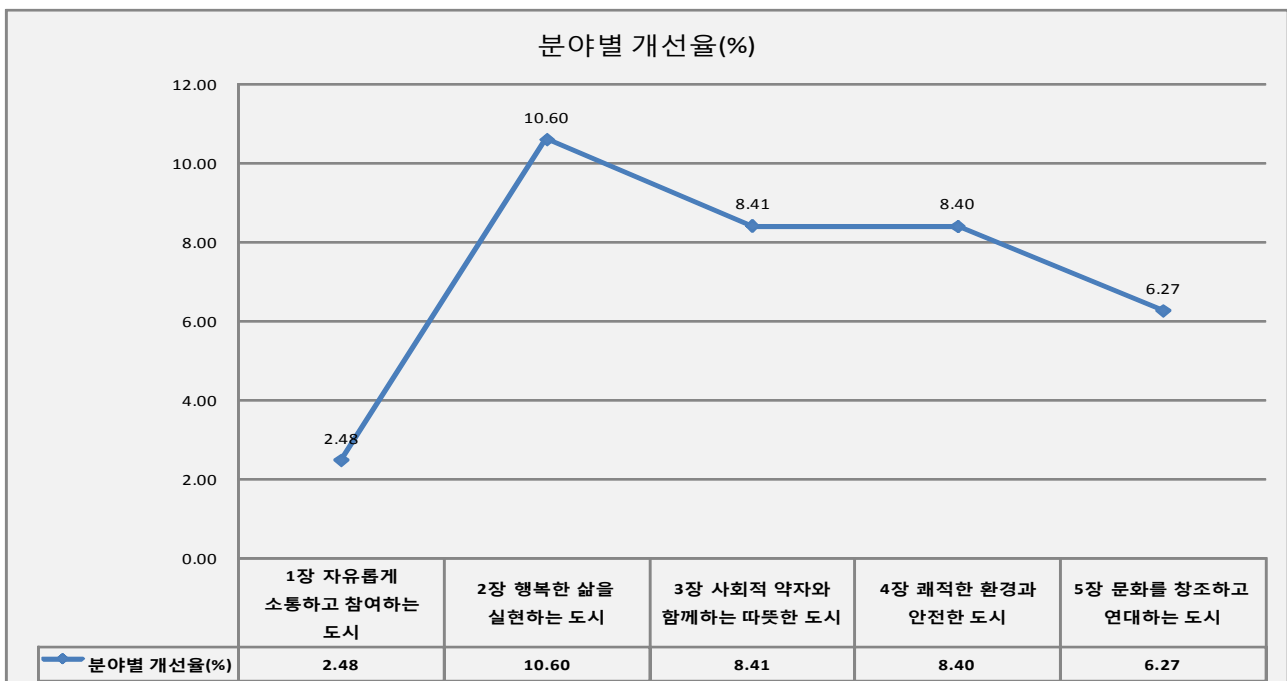
【 현 인권지표 문제점 】

- 지표로서의 대표성, 측정산식으로 결과 산출 애로, 단순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자료가 없거나 몇 년 주기 통계산출 가능 지표는 평가 불가
- 지표수의 방대함, 단순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지표와 인권정책 지표가 혼재 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 정책 실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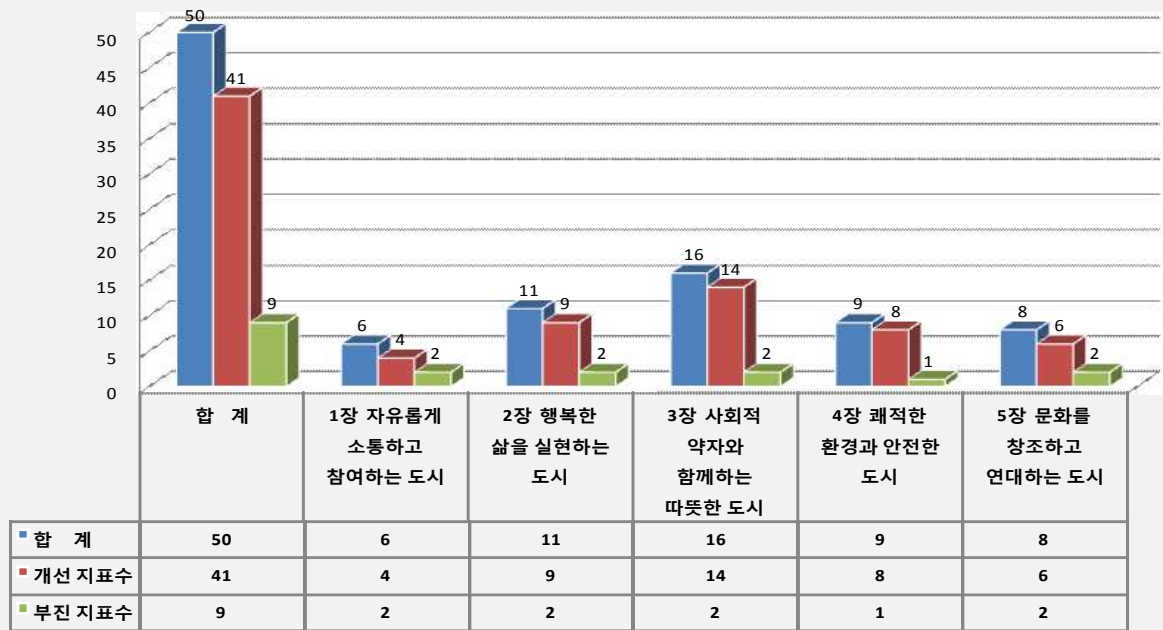
⇒ **인권정책시민토론회, 인권정책연석회의, 인권도시기본계획용역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의 지표관리 추진**

- 광주인권헌장 5대 분야 18대 영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인 2016년도 인권지표 실천결과 평가결과
- '16년 평가는 전년대비 지표수 조정 및 정성평가 미실시로 개선을 비교가 어려우나 개선된 지표수(41개/82%)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 '15년 :82.2%
-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분야,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개선율이 높게 평가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의 개선률은 낮게 평가되었다.
- 개선률이 저조한 지표 : 자원봉사자 수(1장),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5장)
- 개선률이 높은 지표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2장), 이주민 이동권과 언어소통권(3장), 탄소은행 지원금액(4장)
- ※ 지표별 분석결과 : 【붙임 2】 참조

5대 분야별 개선 인권지표 현황



<인권지표 개선 및 부진 지표 수>



< 5대 분야의 지표를 분석해 보면 >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는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6개 지표 중 4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
-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의사(사상) 표현과 소통의 기회가 보장되고, 행정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책 결정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인가를 평가함
 -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학교·공무원·시민 인권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시민 인권교육확대 및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 ※ 인권교육 현황 : 학교(97.15%), 공무원(100%), 시민(18.12%)
 - 정보공유와 정책 참여현황을 볼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율은 개인정보 보호기준 강화 및 청구건수 증가에 따라 공개율이 하락하고, 위원회의 당연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민위원 참여에 한계가 발생함.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 조직율이 증가하면서 시민활동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됨
 - ※ 시민사회단체 수 : 563개 → 590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는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1개 지표 중 9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
-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는 도시인가를 평가함
 -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으며 공공분야 직접고용 및 공무원 전환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16.8.29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함
 - ※ 공공분야 직접고용 전환 : 772명, 공무원 전환 : 66명
 - ※ 사회적 일자리수 : 3,200개 (전년대비 202개 증가)
 - 우리 시는 자살률이 전국 시·도중 최저도시이며 영유아·노인 건강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16.10.26일 조선대학교가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17년부터 3년간 26억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건강한 삶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 영유아 검진율(62.62%), 노인 검진율(108.29%)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분야는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6개 지표 중 14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
- 저소득층, 남·여, 장애인·청소년·노인·외국인 등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평가함
 - 공공기관 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으로 설치대상 11곳 중 9곳이 설치완료되었으며, 가정돌봄(공동생활가정, 입양 등) 수혜아동수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를 상회하고 있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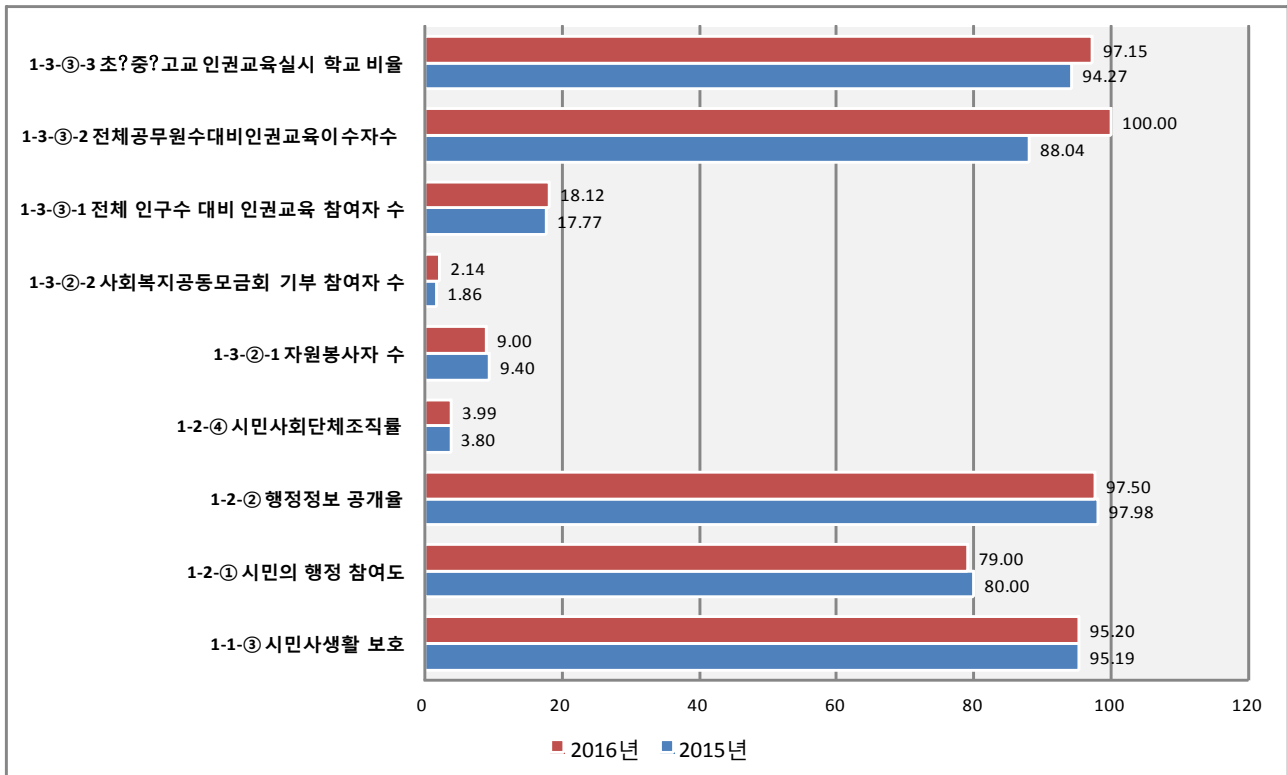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9개 지표 중 8개는 개선, 1개 지표는 부진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차별없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범죄·재해·유해식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함
 - 통합환경지수는 광역시 중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이며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전년대비 0.04% 증가되고, 탄소은행 가입자 및 지원금액이 증가 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차별 없는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을 위하여 212대 지상버스를 도입 하였으며, 2024년까지 전 차량에 대하여 교체할 예정이나 대·폐차 수량부족 및 중형 저상버스 미개발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분야는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8개 지표 중 6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
-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교육·문화환경 조성 및 시민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환경을 평가하고 국내외 인권증진 교류 등에 대해 평가함
 - 학급당 학생수가 22.26명으로 전년대비 0.54%가 감소하였으며, '16년도에 청소년 시설 2곳이 신규 설치되어 교육·문화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 OECD기준 : 학급당 학생수 :21.2명
 - ※ 신규청소년시설 :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소폭 하락하여 도서관서비스 개선 노력 및 독서 인구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사업중 문화기획 사업이 종료되어 문화전용카드 발급이 감소함
 - 5.18피해자 중 등록자가 증가하고,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 홍보강화 및 치유인문학 등 프로그램 개발로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증가함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지표 6 / 하위 9]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보장 영역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지수를 알아보는 「시민 사생활 보호」를 평가함

(시민사생활보호)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지수가 95.19%에서 95.20%로 0.01% 소폭 상승함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영역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도」, 「행정정보 공개율」, 「시민 사회단체 조직율」을 평가함

(시민의 행정참여도) 위원회 별로 공무원 당연직 규정에 따라 전년대비 시민참여도가 1% 소폭 감소하였으며, 참여도 확대 등 정량평가보다 공모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회의공개 등으로 시민 행정참여도 확대에 노력해야 함

(행정정보 공개율) 개인정보 보호기준 강화 및 공개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공개율이 0.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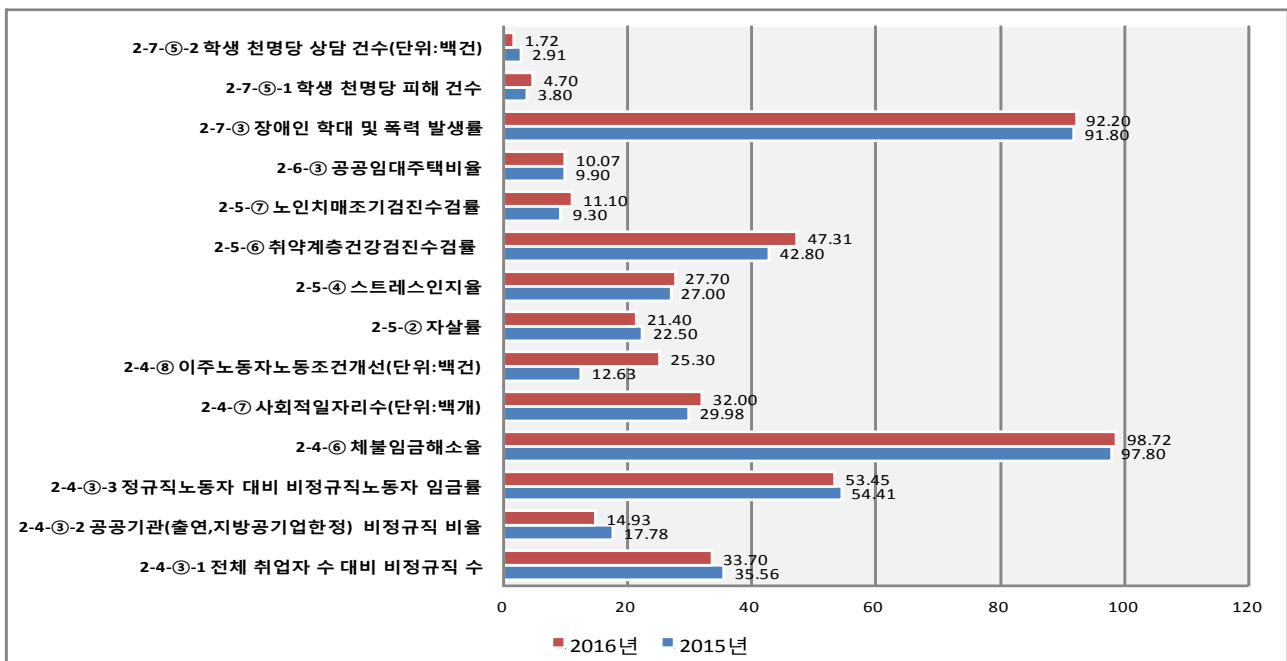
(시민사회단체 조직율) 매년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비영리단체 수가 27개 증가함으로써 5% 개선됨

○ 인권문화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영역 평가에서는 「기부 참여율」, 「인권교육 참여율」을 평가함

(기부 참여율) '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종료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111.4만명에서 85만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4년 대비 20.5만명이 증가되어 자원봉사활동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 참여자도 전년대비 0.28% 증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인권교육 참여율) 시민(18.12%), 전체공무원(100%), 초·중·고교생(97.15%)의 인권교육 이수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지표 11 / 하위 14]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실현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체불임금 해소율」, 「사회적 일자리수」,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평가함**

(비정규직 비율) 전체근로자 552천명 중 비정규자는 186천명 (33.7%)이며 전년대비 1.86%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49.4만원으로 정규직의 53.5% 수준을 받고 있음. 우리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 마련으로 간접고용 772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여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음

(체불임금 해소율) '16년 6,786건이 발생하여 6,699건을 처리해 98.7% 체불임금 해소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광주 및 인근 9개 지역을 포함한 통계로 광주만의 통계자료 파악이 어려움

(사회적 일자리수) '16.8.29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6년 기준 사회적 일자리 수는 3,200개소로 전년대비 202개 증가함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이주노동자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1,267건 증가로 100.32% 개선됨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보장 영역에서는 「자살률」, 「스트레스 인지율」, 「취약계층 건강검진수검률」,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을 평가함**

(자살률) 우리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가 21.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전국 시·도중 자살 사망자수 최저 도시임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속 추진으로 정신건강 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은 0.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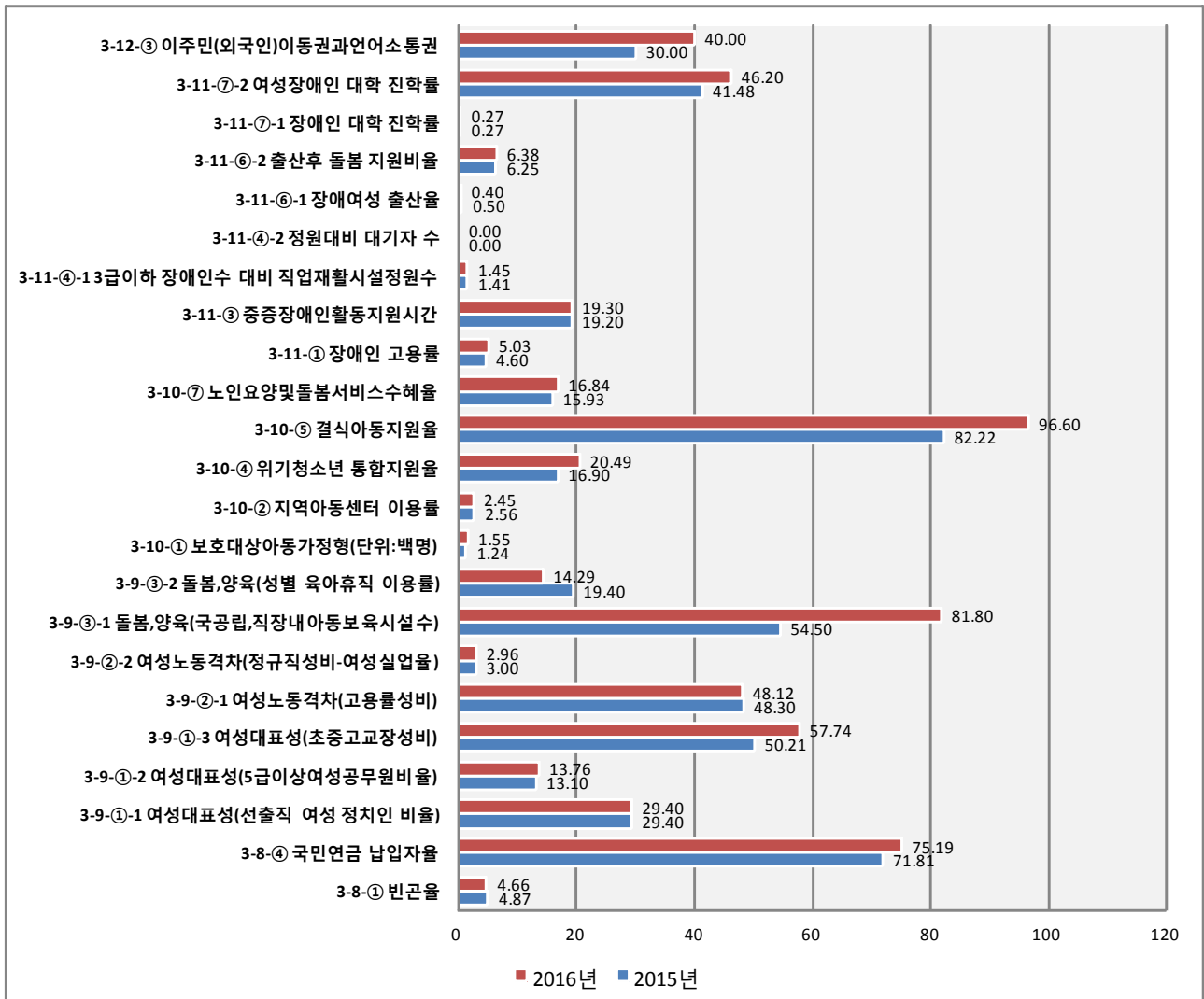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자는 9,595명(43%)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유아(62.62%), 노인(108.29%)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율) 노인치매 조기검진자는 27,448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되었으며, 2016.10.26일 조선대학교가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17년부터 3년간 26억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영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평가한 결과 '16년 4,454세대를 공급하여 임대주택 공급비율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영역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폭력발생률」, 「학교내 폭력발생 및 구제」를 평가함

(장애인 학대 및 폭력발생률) 전체학생수 204천명중 피해학생이 968명으로 전년대비 116명의 피해학생이 증가되어 단편적인 학교폭력 방지책보다 장기적인 인성교육 및 사회 전체적인 인식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됨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지표 16 / 하위 23]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조장 영역은 「빈곤률」, 「국민연금 납입자율」을 평가함

(빈곤률) '15년 수급자 기준완화에 따라 수급자수가 증가하였으나, 맞춤형 급여체계의 점진적 적용으로 전년대비 수급자 수가 2,263명이 감소하여 빈곤률이 0.21% 감소하였음

(국민연금 납입자율) 국민연금 징수율은 75.19%로 전년대비 3.38%가 증가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회가 높아짐

○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보장 영역은 「여성대표성」, 「돌봄·양육」을 평가함**

(여성대표성) 여성정치인 수는 30명으로 전년대비 동일, 시 5급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105명으로 전년대비 13명(0.66%)이 증가하고, 초·중고 여성 교장 수는 138명으로 전년대비 19명(7.53%)이 증가하여 여성대표성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나, 15세이상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18% 감소됨

(돌봄·양육) 공공기관 보육시설 설치대상 11곳 중 총 9곳 (81.8%)이 설치되어 전년대비 27.3% 증가되었으나, 남성휴직자 수는 10명으로 전년대비 5.11%가 감소됨

※ 신규설치: 3곳(동구, 남구, 국세청)

○ **아동·청소년·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영역은 「보호대상 아동 가정형」,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결식아동 지원율」,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평가함**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가정돌봄 수혜아동수는 155명으로 전년대비 25% 개선되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향상되었음

⇒ 공동생활가정 : 44명(20명, 54% 증) 입양:24명(12명, 50% 증)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8,058명으로 전년대비 93명 감소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 질적 향상이 요구됨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위기청소년 지원자수는 64,991명으로 전년대비 3.59% 증가하였고, 위기청소년 특성(가출, 폭력 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결식아동 지원율) 지원기준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결식아동 지원수가 21,563명(96.6%)으로 전년대비 14.38% 증가함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수는 14,640명중 2,466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아 전년대비 429명이 증가함

- 차별없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영역은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설치수」, 「여성장애인 출산」, 「장애인 대학진학률」을 평가함

(장애인 고용률) 전체공무원 2,186명 중 장애인공무원 110명 (5.03%),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를 상회하고 있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전을 도모함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자는 16,980명으로 월평균 19.3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1시간이 증가됨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설치 수) 전년대비 보호작업장 1개소 추가 설치로 3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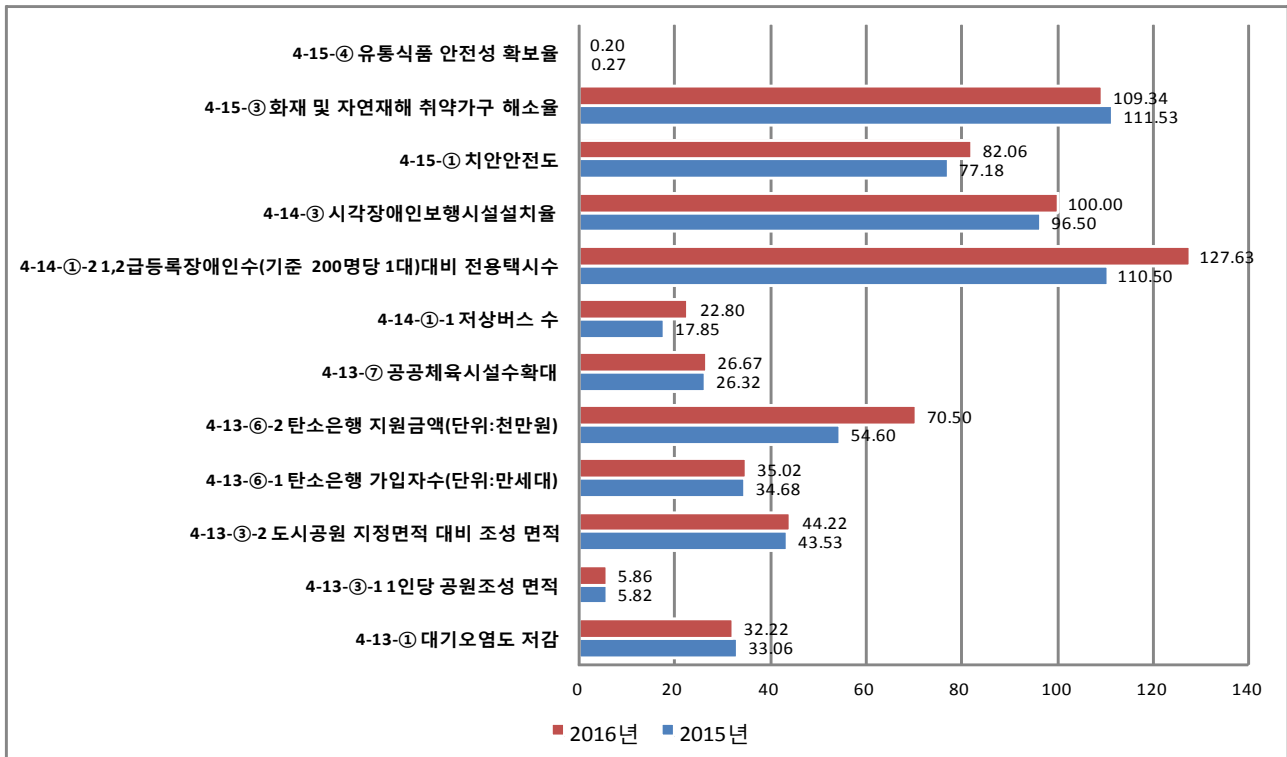
※ 직업재활시설 수 : 22개소

(여성장애인 출산) 출산자 수 47명으로 전년대비 3명이 감소하고 출산 후 돌봄서비스는 전년대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

(장애인 대학 진학률) 장애인 대학 진학률 전년과 동일하나 여성장애인 대학 진학률은 4.72% 증가됨

- 다양한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실현 영역은 「이주민 (외국인)이동권과 언어소통권」을 평가한 결과 통역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수가 전년대비 30개소에서 40개소로 증가하여 언어 소통권이 크게 향상됨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지표 9 / 하위 12]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관리보장 영역은 「대기오염도 저감」,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녹색에너지 자립도」, 「공공체육 시설수 확대」를 평가함

(대기오염도 저감) 통합환경지수 32.22%로 전년대비 0.84% 감소하였으며 특·광역시 중 6년간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임

※ 미세먼지 수치가 제외된 대기오염도이며,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WHO 기준보다 2배가량 높게 설정되어있음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공원 조성면적은 1인당 5.86㎡로 전년대비 0.04% 증가되었으며, 공원조성 지정면적 대비 도시공원조성 면적 조성율은 44.22%로 전년대비 0.69% 증가

※ 공원 조성면적 : 8,730,444㎡, 공원조성 지정면적: 19,741,559㎡

(녹색에너지 자립도) 탄소은행 가입 세대수 350,170세대로 전년대비 3,400세대 증가하였으며, 가입세대 지원액은 159백만원 증가되어 대기질 오염원 감소에 노력함

※ 탄소은행 지원금액 546백만원 → 705백만원으로 증가

(공공체육시설수 확대) 남구다목적체육관(연면적: 6,006㎡, 부지면적: 13,063㎡) 신설로 개선률 1.33% 달성

○ **시민모두에게 장벽없는 편리한 도시조성 영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시각장애인보행시설 설치율」을 평가함**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2024년까지 시내버스 930대 교체 목표로 현재 212대를 교체 완료하여 전년대비 27.73% 개선하였으나, 대·폐차 수량부족 및 중형버스가 미개발 상태 등 문제점이 있음

(시각장애인보행시설 설치율) 음향신호기 36개소 120대 설치로 100%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리시는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점자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음

○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영역은 「치안안전도」,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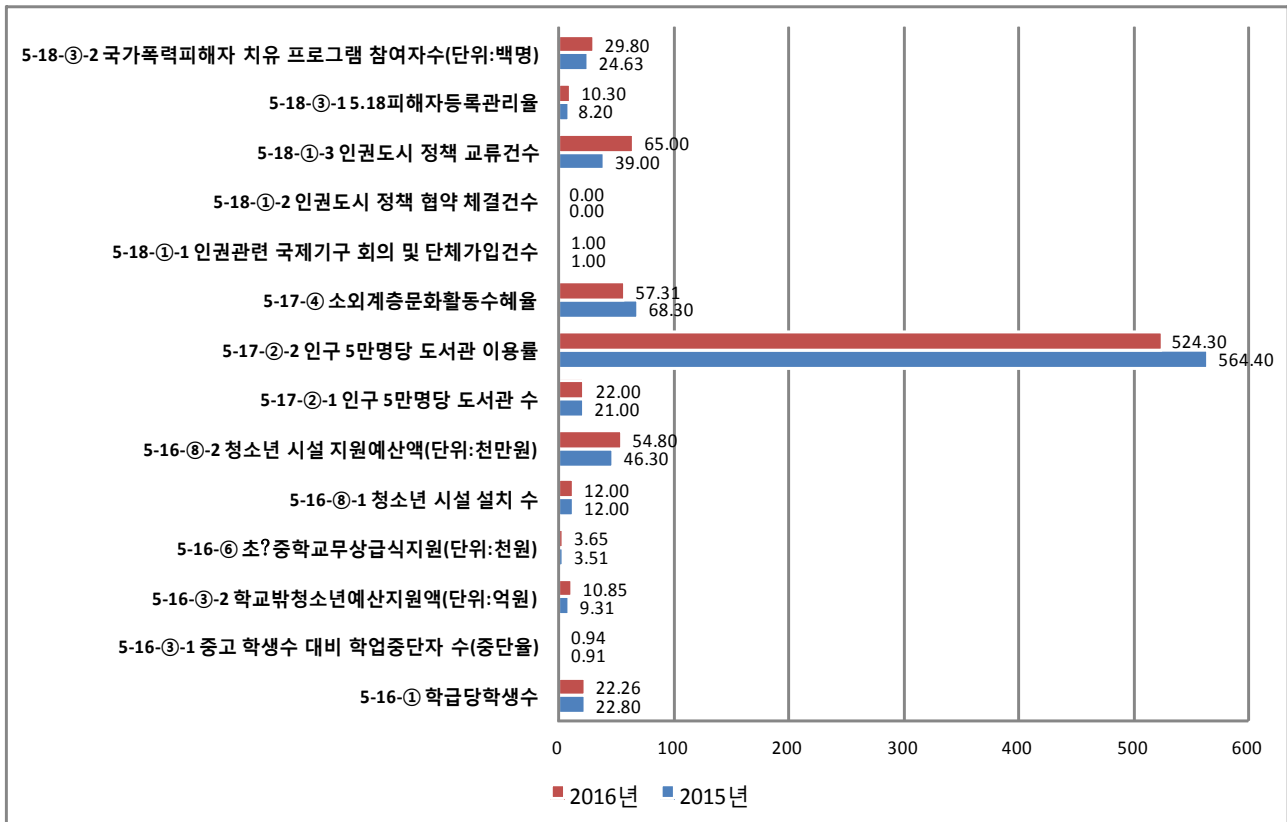
(치안안전도) 5대범죄 발생비율 및 여성피해자수가 감소하고 검거율 및 여성피해자 비율이 감소하여 범죄발생을 감소 전국 1위 도시 달성

※ 5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취약지구 소방시설 보급률 109.34%로 100%이상이 달성되어 소방시설 보급 목표값 수정이 필요함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식품등 검사건수 5,033건 중 10건이 부적합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5.93% 개선됨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지표 8 / 하위 14]



○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영역은 「학급당 학생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을 평가함

(학급당 학생수) OECD기준 학급당 21.2명이며 우리시는 현재 22.26명으로 전년대비 0.54%가 감소함

※ 초등학교 기준으로 작성됨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업중단자수 1,068명으로 전년대비 26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학생수 감소로 중단율은 0.03% 증가하였음. 시교육청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함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초·중학생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자이며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 예산 지원액이 다름

※ 지원대상자 : 143,791명, 1인당 지원액 3,647원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청소년 시설은 현재 12개소로 '16년에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나, 2개소가 폐지되어 총 시설수는 전년대비 변동 없음

※ 신규시설 :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영역은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률」,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을 평가함**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률) 도서관 1관당 이용자수는 67,688명이며 도서관수는 총22개관으로 1관당 이용자수 5만명 달성을 위하여 30개 도서관이 필요함. 도서관 이용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여 도서관서비스 개선 및 독서인구 확대 노력이 필요함

※ '16년 신규 개관도서관 :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문화기획사업이 완료되고 문화전용 카드발급 건수가 감소하여 문화활동 수혜율이 감소하였으나 문화카드 이용률은 증가함

※ 문화카드 발급 : 75,304명 → 62,193명

문화기획사업 기간 : '11년~'15년 / 문화카드 이용률 : 87% → 92%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영역은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건수」,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지원」을 평가함**

(국내외 인권교류협력건수) UCLG-CISDP(세계지방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회의개최 및 인권도시 정책교류 (65건) 등으로 남미와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권교류를 통해 인권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인권 가치와 경험을 공유함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지원) 5.18피해자 피해자(추정) 4,312명 중 등록자는 444명으로 10.3%가 등록하였으며,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 홍보강화 및 치유인문학 등 프로그램 개발로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980명으로 전년대비 517명이 증가함

- 2016년 인권지표 평가 및 2017년 추진계획 송부(관련부서): '17. 5.
 - 부진지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인권지표 평가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17. 5.
- 개선 인권지표 확정 및 부서 안내 : '17. 12.